

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 온스 당 2089.7弗

〈한화 272만 7000원〉

금 가격 2000弗대 안착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일각선 추가 상승 분석도



국제 금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금값도 오르며 거래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일 서울의 한 귀금속 매장 모습. 금값 상승은 최근 달러 약세 및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뉴스시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지난 1일(현지시간) 온스 당 2089.7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 가격을 경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재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로 수요가 몰린 까닭이다. 상승 요인이 아직 유효해 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선물시장 금 가격은 지난 1일(현지시간) 온스 당 2089.7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 2020년 8월 기록한 2069.4달러다. 지난 달 27일 2012.4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6개월 만에 연중 최고가를 기록한 지 4거래일 만이다. 지난달 10일 온스당 1937.70달러였던 금 가격은 거래일 평균 0.37%의 상승폭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다.

이번 금 가격 상승은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인플레이션 헤지(화폐가치 하락기에 화폐를 가치보전이 가능한 자산으로 대체하는 것) 수단으로 금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매파적(통화 긴축정책 선호)으로 간주되는 일부 연준 위원들이 비둘기파적(통화 완화정책 선호)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1일 내놓은 일부 매파적인 메시지가 시장에서 ‘균형 맞추기’용 발언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좌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는 긍정적이지만 지속돼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준금리를 언제든 다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균형 맞추기’용 발언으로 해석하면

서 긴축 종료 전망에 힘이 실렸다. 같은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서는 내년 3월 이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64.7%로 전망했다. 한 주 전(21%)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의 휴전 협상 결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안전자산인 금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CNN,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 결렬 이후 군사작전을 재개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 이어 남부에도 작전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지

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초 금리가 인하된다는 기대감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격화될 전망이 나오면서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홍해상에서 미 해군 군함이 상선과 함께 공격당했다”며 “후티(예멘 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이런 공격은 이란 때문에 가능하다”며 이란에 책임을 묻는 메시지를 냈다.

같은날 이스라엘 공영방송인 칸(Khan)도 이스라엘의 대내 정보기관인 신베트(Shin Bet)의 로렌 바르 국장이 “이스라엘은 수년이 걸리더라도 전 세계에서 하마스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고 언급한 음성파일을 공개하며 지역 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금 가격 상승은 미 연준의 긴축 중단 기대감에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금 선호가 작용한 것”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꾸준히 있었지만 이번 금 가격에도 제한적으로나마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최상목, ‘천재관료’ 수식어 코로나 시기 민생정책 주도

4일 윤석열 정부 제2기 경제팀을 이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상목(60) 후보자는 ‘천재관료’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정책 결정에 있어 판단력이 뛰어나고 일처리가 신속·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정부 출범초부터 신임 부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등 부처 내 큰 기대를 받아 왔다.

최 후보자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2011~2013년)에 이어 부총리 정책보좌관(2013~2014년)을 지냈다. 이후 박근혜 정부 후반부인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재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또 일동홀딩스 사외이사,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등을 거쳐 농협대 총장직(2020~2022년)을 맡은 바 있다. 지난해 3~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분과 간사를 맡아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했다. 당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대출규제완화 등 민생 관련 정책을 주도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호흡을 맞춰왔다.

그는 경기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개각이 단행된 직후 최 후보자를 정통 경제관료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물가·고용 등 당면한 경제·민생을 챙기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1면 ‘경제부총리 최상목’서 계속

중기부 등 6개 부처 개각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절반인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여성을 발탁했다. 이는 내각 2기 여성 비율을 늘리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 강정에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했다.

김 실장은 “오영주 후보자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2차관을 역임하며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왔다”면서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발전 전문가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축적한 연구업적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정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저명한 여성 경영학자로 경륜 있고 학계 내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며 “6·25 참전용사 딸이고, 독립유공자 손주며느리로 보훈에도 평소 남다른 식견을 갖추고 있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

“수입 요소 신속통관... 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산업부, 롯데정밀화학 등 민관 협력
“中 통관 지연, 정치적인 배경 없어”

중국 요소 통관 지연에 따라 제2의 요소수 대란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합동으로 대응회의를 열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국내 일부 주유소 요소수 가격이 리터당 5700원에 달하는 등 주유소별 가격차이가 최대 5배를 넘어서면서 수급 불안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이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 대응에 나섰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앤씨 등 차량용 요소수 수입·유통업체 7개사,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조달청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와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내 업체의 대중국 요소수 의존도는 90%에 달한다. 현재 국내 재고와 중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 예정물량은 약 3개월분이 확보된 상태며, 동남아·중동 등으로 수입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KOTRA와 협

력해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소 통관 지연은 사실로 확인했으나,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관지연은 팩트로 확인했다”면서 “배경에 대해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정치적 배경은 없다. 경제적인 이유다.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수 수요가 타이트해 통관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이 국내로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

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공동 위원회를 포함해, 한중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기업의 통관 애로 해결과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또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요소수 생산·유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승철 산업정책실장은 “그간 업계와 요소 공급망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온 만큼, 요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